

투데이 칼럼

군산해양경찰서 선유도출장소 신축계획 원점으로 돌려라

고 군산군도의 중심 섬인 선유도는 섬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선유도는 신석기 시대~ 고려 시대까지 해양문화교류의 허브 역할을 했다.

또한 군사적 요충지로 왜구침입을 막고자 조선 태조 때 수군진을 설치했고, 세종 때 수군진이 진포로 옮겨가며 진포가 군산이 되었다.

이후에도 선유도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지 않았으나 2년(1624년) 군산도에 군사진이 만들어지면서 옛(古)를 붙여 고군산이라 칭하였다.

현재 군산해경 선유도 출장소가 선유 2구(선유도리 279-4)로 이전하여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 뒤편 아산은 고군산진이 있었던 장소로 현재도 기와장과 건물 기단석을 볼 수 있는 역사적·문화적 관광자원으로 뒤떨어진 곳이다.

이처럼 출장소가 선유 2구 선유도 우체국 앞쪽에 신축된다는 소식은 주민들 사이에 적지 않



한 경 봉

군산시의회 의원

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치안 시설과 부지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과연 선유도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적 가치를 버리면서까지 해경 출장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는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또는 과연 타당하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들은 구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각색하여,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역사적 고증이 확인되고 훌륭한 관광자원이 즐비한 선유 2

구에 왜 굳이 관공서 건물을 지으려 하는가.

앞에서 밝혔듯이 선유도는 역사·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곳으로 향후 우리 군산시 문화·관광에 성장동력이며, 거점으로 조성하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선유도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적을 물리친 명량 해전 직후 서해안을 따라 올라와 12일간 머물면서 휴식과 재정비를 취한 곳으로 특히 명량해전의 승첩장터를 작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450만에서 1,76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명량, 한산, 노량과 같은 임진왜란을 다룬 영화의 성공사례를 보듯 선유도에서 이순신 장군 콘텐츠를 바탕으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산해경은 문화·관광 인프라를 사장시키는 선유도 출장소 신축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군산시는 해경의 본연 임무를 수행할 최적의 부지를 다시 찾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출장소 신축예정 부지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할 여행자 지원센터 등으로 개발한다면, 관광객 유입 효과와 선유도 관광자원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신축예정부지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신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행정편의주의는 버려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군산해경물면서 휴식과 재정비를 취한 곳으로 특히 명량해전의 승첩장터를 작성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450만에서 1,760만 명의 관객을

사설

북한 전산망 해킹 사건

지난해 있었던 사법부 전산망 해킹 사건에 대한 합동 수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자료는 1천 GB(기가바이트) 분량으로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았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기가바이트의 법원 자료가 빠져나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등이 지난해 12월부터 합동 수사를 결과, 모두 1,014 기가바이트의 자료가 2년 동안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

기초에 알려진 수백 기가바이트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다.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과 서버 결제 내역 등을 추적한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국내외 해외 서버 8개를 거쳐 자료를 빼갔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 서버에 남아 있던 파일 약 5천 1백여 개를 발견했다. 발견된 유출 파일은 4.7GB

규모로, 개인 정보가 담긴 파일이 수십만 개로 추정된다. 특히 '회생 사건' 관련 문서였다.

그러나 이렇게 내용이 확인된 유출 자료는 전체의 0.5%에 불과한 상황이다. 나머지 서버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라자루스가 어떤 이유로, 그리고 무슨 자료를 빼갔는지는 알 수 없게 됐다.

법원 전산망에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침입해 있었는지도 밝혀지지 못했다.

자료 유출은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이뤄졌다. 그러나 저장 용량의 한계로 2021년 1월 이전의 보안 장비 상세 기록이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을 알 수 없다.

전북 도내 늘봄학교 시행

방과후 교육과 돌봄 교육을 결합한 '늘봄학교'가 시행 첫 해 준비 부족으로 학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늘봄의 경우 하반기부터 전북 도내 모든 학교가 의무 시행 대상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뿔기를 즐기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밝다. 초등학교 12학년 을 대상으로 한 어느 방과 후 프로그램 모습이다.

방과후수업과 돌봄을 결합한 늘봄 시범학교인 이 학교는 1학년 학생 1백 명 중 85명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자기 반이 아닌 늘봄 전용 교실에서 대기하다 사전에 신청한 프로그램 장소를 오가며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보낸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덕에 방과 후 늘봄교육을 위한 공간은 여유가 있다. 그러나 시내의 다른 학교들이

모두 그런 상황은 아니다. 도심 과밀 지역 학교는 1학년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 하반기부터 무려 140개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공간 확보가 추진되고 있다.

학생들을 돌보고 행정 업무를 맡아볼 늘봄 실무사 역시 충원이 한창이다. 137명인 현재 방과후 행정 실무사에 더해 163명의 늘봄 실무사를 추가로 선발해 하반기부터는 모두 3백 명의 실무사가 현장에 투입된다.

현행 3시간인 업무 시간도 6시간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도심 과밀학교는 민원이나 감사 관리, 복잡한 예산 처리까지 도맡아야 해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늘봄학교는 학생 1명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자 부담과 무상 교육이 혼재되고 예산 처리도 복잡해 이 역시 장기적으로 전면 무상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데이르 알발라의 팔 난민 천막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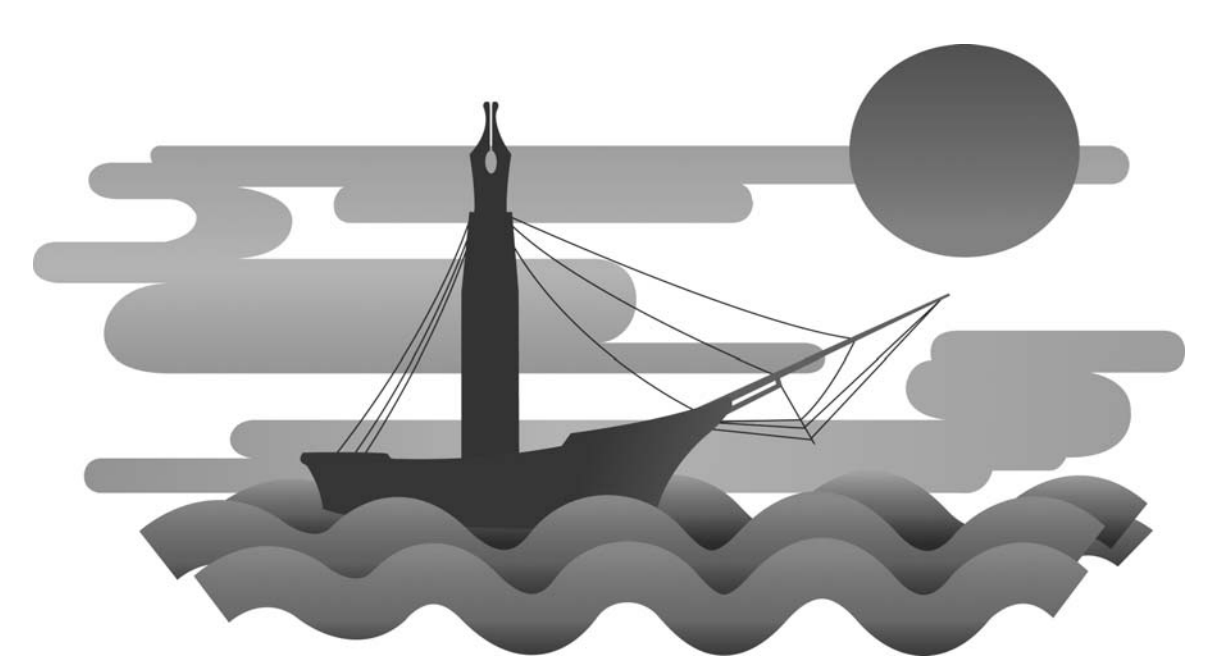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지상 공격으로 피란길에 나선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12일(현지 시각) 가자지구 데이르 알발라에 임시 천막촌을 형성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주 홍수, 최소 37명 사망



13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서수마트라주 띠나디타르 마을 주민들이 전날 폭우로 인해 발생한 홍수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현지 당국은 전날 폭우로 돌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3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